

순천대, '의대 이원화·권역별 대학병원' 정부 결단 촉구

“대학간 협의 의대 소재지 결정 한계”
“국가로드맵·예산·실행 의지 보여야”
“특정지역 희생한 의대는 불균형 초래”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간 대학 통합 논의가 의과대학 소재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순천대가 대학 간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에 한계를 인정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순천대는 20일 이병은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의대 소재지 논쟁이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미루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국가 차원의 로드맵과 예산을 통해 확고한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순천대와 목포대는 정부의 2030년 전남권 의대 신설 방침이 정해진 이후 교육부가 최종 대학 통합 신청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 ‘통합 대학본부 위치’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두 대학은 지난해 말 전남도와 3차 업무협약에서 통합 대학본부와 의대를 분리 배치하기로

했다. 즉, 대학본부 소재지가 아닌 곳이 의대 소재지로 자동 결정되는 셈이다. 순천대는 “그동안 대학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 왔으나 이 방식만으로는 지역민과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의대 문제를 대학에만 맡기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순천대는 전남 동·서부권의 상이한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이원화된 의대 교육체계와 권역별 대학병원 설립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부권은 인구가 집중된 거대 생활권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가산단이 밀집해 있어 응급·중증·재활 의료 수요가 매우 높고, 서부권은 도서 지역 등 의료 취약지 해소가 시급한 만큼 단일 구조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게 순천대의 판단이다. 다만, 순천대는 타 대학병원의 분원 형태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순천대는 “예산의 한계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의료 주권을 타 지역 의료기관에 의존하게 하거나 의료 소외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며 “전남 동·서부 각 권역 특성에 맞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병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은 총장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은 전제로 한 의대 신설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라며 “동·서부권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과거의 갈등과 소외가 반복되는 ‘오래된 미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상생적 해법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구 50만 원 우선 지원
소득하위 70% 15만 원 내달 18일부터



地選 사전투표 운영장비 설치 교육 6·3 지방선거를 44일 앞둔 20일 오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구·남구 사전투표 관리관과 장비 담당 사무원들이 사전 투표 운영 장비 설치 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 /조경원 기자

광주시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담팀(TF)’을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TF는 지원금 지급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 주요 업무로는 접수 창구 운영과 선불카드 발급 관리, 대상자 적격 여부 판정, 이의신청 처리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 50만 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등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에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 여부는 20일부터 국민서비스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접수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2차 접수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가구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며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남인 4월 30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

람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홈페이지 및 앱, 카카오톡·페이, 토스, 케이뱅크, 네이버페이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변은진 기자

▶1면 '기울어진 통합특별시의회' 서 계속
전문가들은 현재의 통합특별시의회 9인 체제로는 통합특별시의 연차록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계해 광역의원 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재획정 특별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대안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7월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회는 2배에 가까운 인구 편차라는 ‘현

법적 뇌관’을 안고 첫 발을 댄다”며 “불균형을 공정하게 보정하고 도농 간의 자원 배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통합특별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발 경제위기...道, 민생안정 총력

‘비상경제 대책 점검회의’ 대응 논의
금지사, 민생사업 신속 추진 등 강조

특히 면세유, 나프타, 아스콘 등 주요 품목의 공급 상황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도는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 애로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하고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 추경에 반영된 민생안정 사업과 자체 추진 사업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 택시업계, 문화예술분야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민생 지원사업에 대해 도민이 쉽게 알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는 20일 ‘비상경제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상황 관리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남도는 점검 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 석유 화학·철강·농어업 등 주요 산업 동향, 에너지 공급 관리 등 분야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해룡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출마”

AI교육센터 구축 등 5대 공약 제시
“고투갑·이정선 예비후보와 단일화”

정연구원 설립, ‘배움-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치대비전로·진학 재설계 등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아이를 지키고,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키우는 교육으로 전남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 단일화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철학과 정채이 같은 고투갑·이정선에 비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했다”며 “단일화는 여론조사 100%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며, 오늘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선욱 기자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일 광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보여주기식 정치 교육을 끝내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며 “교사, 교장, 장학관, 교육장으로 이어진 교육 행정, 국가교육정책 경험까지 갖춘 준비된 후보로서 안정적인 통합교육을 설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 일자리 2만개 창출 ▲AI 기반 맞춤형 교육 강화 ▲권역별 AI 교육센터 구축 ▲지역 연계 교육 강화 ▲통합형 교육행정 개편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팀 신설과 전남광주교육과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대지국 및 각 지방지사

외국인채용공고

전남 장흥 민물장어양식장에서 함께 일할 외국인인을 구합니다.

- 모집인원 : 2명(남성)
- 급여 : 협의 후 결정
- 숙식제공

(유)골드오션
010-3666-245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특보]

- 병원용도: 아파트대단지대로변 250평·450평 --- 4억짜지원(시설비명목)
- 대형수퍼, 헬스장, 당구장: 집기제공 --- 6개월 무상임

[급매]

- 재개발대단지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 --- 점포4칸, 주차4대 (급매)2억6,500
- 서영대역(운암동)주거및자연녹지 투자용 --- 360평 평당80만원 총가2억8,800

[교환]
상가모텔·주택·땅 교환합시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